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갑, 을, 병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비판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갑: '~한 행위는 옳다/그르다'와 같은 진술은 화자의 주관적 정서 표현에 불과해.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야.
을: 너는 윤리학이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
병: 나도 을의 입장에 동의해.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계를 통해 이론을 응용, 확장하는 것이 중요해.

- ① 갑->을: 도덕 판단의 준거와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을->갑: 인간이 지닌 윤리 의식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을->병: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을 정립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병->갑: 도덕적 판단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함을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병->을: 도덕 규범을 새로운 현대적 윤리 문제들에 적용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2. 갑과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여성은 낙태 문제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 등의 정당방위적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해도 여성이 원할 경우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을: 정당방위적 상황에서의 낙태 허용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아닙니다.
갑: 아닙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녔고,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므로, 여성이 낙태를 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입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낙태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태아는 개별적인 존재이며, 낙태가 쉽게 허용될 경우 사회적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불리함은 낙태가 아닌, 정부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보완될 수 있습니다.

- ① 태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하는가?
- ② 여성은 낙태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가?
- ③ 여성은 낙태에 있어서 태아의 존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 ④ 여성의 임신은 남성과의 평등을 제약할 수 있는가?
- ⑤ 여성의 낙태는 남성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3. (가)에 나타난 사상가의 관점에서 (나)에서 묘사되는 결혼 문화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사랑에 대한 흔한 오해는, 사랑은 즐거운 감정일 뿐이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사랑해줄 올바른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한 사상가는 '사랑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고양시키는 행위'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에 대한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나)	인터넷 기사로 떠도는 어느 결혼정보회사의 등급표에는 남성을 재산과 직업, 학벌을 기준으로, 여성을 나이와 신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확실적으로 분류하였다. 그 회사는 많은 회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등급표'를 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 ① 배우자가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 ② 배우자가 원하는 요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 ③ 배우자가 지닌 사회적 조건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 ④ 배우자의 인격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 ⑤ 배우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4. (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의 A국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판단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우리는 부패를 조장하는 관행을 법적 제재로 척결하려 노력해 왔지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직성과 투명성을 정착시키는 사회적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주로 신뢰, 규범, 관용 등 도덕적 자원들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공공 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시민 결사체들을 통해 의견 대립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킵니다. 그 결과 반칙과 부패는 감소하고, 호혜성과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문제상황)	A국은 '법률 서비스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해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로스쿨을 강행하였다. 그 뒤 정부 고위 관료를 부모를 둔 로스쿨 졸업자가 대기업들에 불공정하게 입사하는 등의 사건들이 보도가 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A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관련 정책에 대해 반발하였다.

< 보기 >

- ㄱ. 사회적 자본을 형성을 통해 부패와 반칙을 척결해야 합니다.
- ㄴ. 불공정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부족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 ㄷ. 반칙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합니다.
- ㄹ. 반칙에 대한 법률적 제재에 앞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적 규범을 내면화 해야 합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인간은 그 마음을 본받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나)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옳음은 그름에서 말미암고, 그름은 옳음에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들로 말미암지 않고 자연(天)에 비추어본다.

- ① (가)는 인위에서 벗어나 자연적 도(道)를 추구한다.
- ② (나)는 자연의 생명력을 도(道)의 도덕적 표현으로 이해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무위의 원리를 실천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지향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열반(涅槃)을 지향한다.
- ⑤ (가),(나)는 하늘(天)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상적인 경지로 보았다.

6.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모든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는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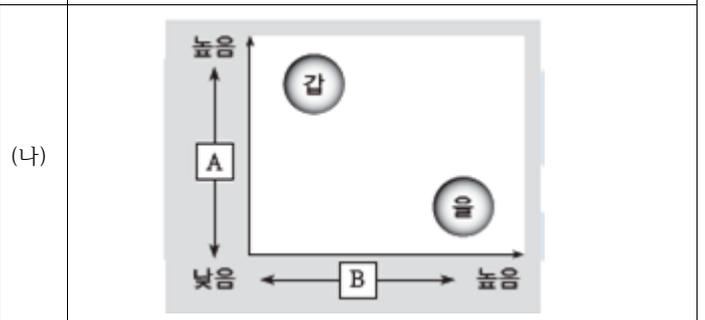
<보기>

- ㄱ. 개인의 양심과 집단의 요구 간에는 모순이 지속된다.
- ㄴ. 이성은 개인의 욕망을 제한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 ㄷ.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강제력은 최소화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 ㄹ.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해야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7. (가)의 갑, 을의 관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나)의 A, B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언론의 역할은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사회와 정치에 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권자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을: 언론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그가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가 큰 죄를 지은 범죄자 라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가 정당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A	B
①	언론의 도덕성 중시 정도	시민의 알 권리 중시 정도
②	언론의 진실성 중시 정도	시민의 알 권리 중시 정도
③	언론의 자율성 중시 정도	시민의 정치적 자유 중시 정도
④	언론의 도덕성 중시 정도	시민의 인격권 중시 정도
⑤	언론의 자율성 중시 정도	시민의 인격권 중시 정도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농(農),공(工),상(商)의 자제를 가릴 것 없이 재능과 학식이 있어서 과거에 합격하는 것에 조금도 구애 받지 않게만 되면, 인사(人事)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농,공,상을 싫어하고 천대할 이치가 그 어디에 있겠는가?

을: 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召命)에 노동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여러 가지 삶의 양식(樣式)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 ① 갑은 신분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② 을은 직업적 성공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적 확신을 강조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각자가 지닌 능력에 따라 일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직업 생활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 ⑤ 갑,을은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9.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정보가 생산자만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보는 '무(無)'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사회의 지적 재산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을: 정보를 통해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보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정보들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보는 제작자가 창의력과 노력을 발휘해 생산한 것이므로, 정보의 사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은 인정해줘야 한다.

- ① 갑은 저작권을 정보 공유를 방해하는 옳지 못한 제도로 본다.
- ② 을은 저작권을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 ③ 갑은 생산된 정보를 공유 재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본다.
- ④ 갑, 을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 시 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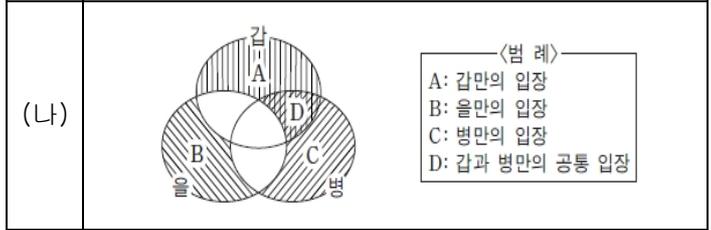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관심,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타자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들, 특히 몇몇 포유류들은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을: 서양의 도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다. 따라서 생태계 파괴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것에 의해 보충될 필요 없이 우리의 생태적 관심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다.

병: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전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고,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르다.



<보기>

ㄱ.A: 동물이 삶의 주체일 때 그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ㄴ.B: 도덕적 행위 주체인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ㄷ.C: 인간의 직접적인 의무는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범위에 한정된다.

ㄹ.D: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다음의 가상 편지에 제시된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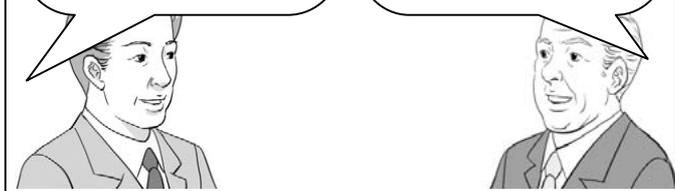
○○에게
 벌써 자네 증조부의 기일이 다가오는 군. 자네는 예(禮)를 치르는 날이 다가오면 음악을 듣지 않고, 출입하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그분을 생각하여, 그 생전에 거처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웃고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즐기시던 것을 생각하여야 하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분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그 음성을 듣는 듯하여 정성이 지극하여 신이 흠향하는 것이네.

- ①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강조하는 의례이다.
- ②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가계를 잇겠다고 서약하는 의례이다.
- ③ 술을 나눠 마심으로써 새로운 이름을 부여 받는 의례이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례이다.
- ⑤ 자기 수양과 가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주 목적으로 한다.

1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종교는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다루고, 과학은 실험 영역에서 사실과 이론을 다룹니다. 도덕과 과학이 서로 구분되지만 충돌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듯이, 종교와 과학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종교는 믿음으로써 사실들을 검증하려 하고, 과학은 사실로써 또 다른 사실을 검증하려 하는 대립적 관계에 서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며 서로를 적극적으로 배격하려는 관계입니다.



- ① 갑은 과학이 종교를, 종교가 과학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을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립하며, 서로를 규제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과학과 종교의 영역을 분리된 독립적인 영역으로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종교와 과학이 서로를 검증하려 하며,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본다.
- ⑤ 갑과 을은 과학과 종교가 가치 중립적인 영역을 다룬다고 본다.

13. 현대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류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 하지는 않다.

을: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 시켜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① 갑은 개인이 재화를 자유롭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 ② 을은 차등의 원칙이 일반 시민들에게 부당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원초적 상황에서의 개인을 이타적 존재로 가정한다.
- ⑤ 갑은 정의의 원칙을, 을은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한다.

14. ㄱ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을 준수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넘어선다고 본다. 기업은 노동자와 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홀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소유주와 주주의 권익 침해, 시장질서 파괴 등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견해가 (ㄱ) 고 생각한다.

- ①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윤리적 경영이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합법적인 경영이 합리적인 이윤 추구의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15. (가)의 갑,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선조들은 이 대륙에 만인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나라를 탄생시켰다. 이제 이 나라의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을 :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뻔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꾸고, 바른 재물로 때에 맞게 제사를 지냈는데도 가뭄이 들거나 물난리가 나면 사직을 바꾼다.

갑, 을의 정치사상적 입장을 탐구한다.

```

graph TD
    A{A} -- 예 --> B{B}
    B -- 예 --> G[갑의 입장]
    B -- 아니오 --> C{C}
    C -- 예 --> E[을의 입장]
                    
```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정치사상적 입장

- <보기>
- ㄱ. A: 정치 권력의 주권과 의무는 피치자에게 있다.
 - ㄴ. B: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교체를 인정한다.
 - ㄷ. C: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
 - ㄹ. C: 국민은 피치자이며 동시에 나라의 근본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안희가 공자에게 말했다. "제 수양이 꽤 진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인의를 잊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훗날 안희는 다시 공자에게 말했다. "저는 더욱 진보했습니다. 저는 좌망 할 수가 있습니다." "좌망?" 공자는 깜짝 놀라 태도를 고쳐 말했다. "도와 하나가 되면 시비 선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와 하나될 수 있다. 네가 무한한 자유를 얻었구나!"
(나)	삶과 ㄱ은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서로 자리를 바꾸며 운행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 ① 자신의 업(業)에 의해 또 다른 삶을 결정짓는 윤회의 과정이다.
- ② 사람의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 ③ 삶과 죽음에는 차별이 없으므로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④ 죄를 지은 자들을 지옥과 연옥으로 데려가는 정죄의 과정이다.
- ⑤ 원자가 모여 이루어진 육체가 원자들로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17. 갑,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서로 다르고 분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에 대해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을: 예술은 미의 영역을 다루고, 도덕은 옳고 그름의 영역을 다루지만, 서로 연결되어있다. 일부 예술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예술이 감상자에게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보기>
- ㄱ. 갑은 예술에는 예술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다고 본다.
 - ㄴ. 을은 도덕성과 무관한 예술일지라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 ㄷ. 을은 갑과 달리 도덕성과 무관한 예술은 옳지 않다고 본다.
 - ㄹ. 갑은 예술의 독립성을, 을은 예술의 사회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은 어느 서양 사상가가 세계 평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비 조항	(전략) •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 상비군은 결국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확정 조항	•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 •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공화정체의 단일 국가의 수립이 평화 달성을 위한 이상적 방법이다.
- ② 국가간의 갈등을 바로잡기 위한 국제 기구의 수립이 필요하다.
- ③ 현실적인 국제 평화는 자유로운 국가간의 연방 단계의 연합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 ④ 영구적인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⑤ 세계시민법은 세계의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요구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하는 데 그 일에 상응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이웃을 위한 일인지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한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을: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받는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돕는 것은 윤리적 의무이다. 원조의 목적은 가난한 개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여건의 사회 체제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움으로써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① 갑은 개인들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여 빈곤한 국가의 개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② 을은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고통 받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해외 원조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모든 인류의 복지 증진을 원조의 목적으로 삼았다.
- ⑤ 갑, 을은 모두 해외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보는 입장이다.

20.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비종교적 인간의 대다수는,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비단 구조상 마술적, 종교적 성질을 가진 근대인들의 수많은 '미신'과 '금기'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비종교적이라고 느끼며, 그렇게 주장하는 근대인들도 여전히 수많은 은폐된 신화와 변질된 제의(祭儀)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들은 비록 세속화 되었지만, 여전히 제의적 속성을 관찰할 수 있다.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A)</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B)</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d style="width: 10%; height: 20px;"></td></tr> </table> <p>[가로 열쇠] (A)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 도덕적 인격을 완성한 존재 (B) 국제적 분쟁의 원인은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입장.</p> <p>[세로 열쇠] (A): 개념</p>											(A)								(B)													
		(A)																															
		(B)																															

- ①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통해 성인과 현자의 덕을 두루 갖추 수 있다는 개념이다.
- ② 일상에서도 성(聖)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 ③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 ④ 종교적 권위가 속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
- ⑤ 초자연적 진리와 자연적 진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